

<2013년 8월 6일 화요일 씨티엔 선생님 새벽요약말씀>

<2006년 10월 11일 수요일말씀>

예수님은 살아 있을 때, 특히 본문말씀에 나온 대로 빌립이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빌립에게 말하기를,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에게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나를 따르라.” 이 외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나를 알고 따르는 사람과 말씀만 듣고 따르는 사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만 보고 따르는가, 나를 깨닫고 따르는가, 나를 누군지 알고 따르는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온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중에 나를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아, 여기 교회 목사님이구나.’ 아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이 여기에서부터 나왔구나.’ 아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나를 누군지 깨닫고 따르는 사람들은 생활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모르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다르고 받는 것도 다르고 내가 그들을 대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는 마치 어떤 단계와 같은가 하면,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애인인지, 부부인지, 남인지, 그냥 존경하는 사람으로 대해주는지 이것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대하는 것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와 같이 나를 깨닫고 따르는 사람들과 나를 못 깨닫고 그냥 말씀만 듣고 따르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를 ‘어떻게 아는가.’ 하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메시아인지 알았으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바로 그런 입장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가서 여러분이 누군지, 무엇을 하는지, 사장인지 회장인지, 사회의 저명인사인지를, 자기의 사상과 정신이 어떠한지 모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면 아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할 것이고 대할 것도 제대로 못 대해줄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아니까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확실히 아니까 왜 역사가 이렇게 돌아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역사가 왜 이렇게 돌아갔고 종교의 역사가 왜 이렇게 돌아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 배웠는데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아니까 모든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있는데, ‘강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언제부턴가 강물이 이상하니 산 너머로 흘러왔구나.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근본을 알기 이전에는 모를 것입니다. 화산폭발이 되어서든지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가게 되었다든지 뭔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반드시 완전히 아는 데서부터 모든 구원도 이루어지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좌우됩니다. 복도, 축복도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아는 데에 대해서 근본을 배우고부터 한 20년 동안 그것만 파고들어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교회에 다녔을 때 아는 것보다 근본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본을 배우고 깨닫고 하니까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20년, 30년 목회를 나보다 더 많이 했는데도 교인 1000명을 못 넘어섰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목회하러 간 사람들은 다 신학하고 날고 기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명을 못 넘어가고 일단 끝났습니다. 선생님은 한쪽에서 제자들이 하는 것만 해도 그 수를 넘어잡니다. 한 지역만 해도 1000명이 넘어잡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을 빼놓고 제자들이 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를 알고 시대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깨닫고 와서 외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렇게 쫓아다니나.’ 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나의 제자라면 30개론을 분명코 확실하게 배우고 나를 누군지 깨달아라. 그러기 전에는 제자라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제자는 나와 같이 한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할 때에 이야기해주신 것이지만 “네가 승리하는 것을 가만히 훑어봐라. 어떤 때에 승리했느냐. 끝까지 한 것만 승리했지 않느냐. 왜 그런지 아느냐.” 끝까지 가야 그 맨끝터리에 내가 원하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거친 다음에 거기에 놔뒀다는 것입니다. 맨 꼭지점 산 정상에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산정상이 최고 높은 지역이 아니냐. 그와 같이 끝까지 가고, 너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를 못 가보니까 만날 지는 것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항상 이긴다.”

“그러면 악인과 의인이 끝까지 가면 누가 이깁니까.”

“아이구, 의인이 이기지.”

“어떻게 해서요. 똑같이 끝까지 가는데요.”

“악인은 6수고 의인들은 7수가 아니냐. 항상 거기가 악인의 끝이고 의인들은 한 발자국 더 가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기는 거야. 100미터 달리기 할 때 보면 한발자국 더 먼저 가서 이기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늘 하니까 이기지 않느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끝까지 계속 기도를 하니까 결국 그 끝이 되니까 만났을 때 서로 편지로 만나고 소식으로 만나고 전해주고 하니까 결국 이겨서 다시 오게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항상 승리했을 때 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 기회가 있습니다. 자기 기회가 있는데 그때 못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해야 됩니다. 씨 뿌리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에 씨를 못 뿌리면 바로 눈이 와서 씨를 못 뿌립니다. 자기 기회 때, 그때 못하면 뺏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도 기도하고 원하는데 기회가 왔을 때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 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모릅니다. ‘모르고 못했는데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몰라서 못했는데...’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알아버립니다. ‘그 때가 기회였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기회 때 그때 해야 됩니다.

제자들과 내가 28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옆에서 데리고 있어보기도 하고 격을 차리지 않고 같이 식사도 해보고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했는데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 모르는구나. 어둠속에 있었을 때도 몰랐지만 빛 앞에 나와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커야 된다.’ 합니다.

“열을 아는 사람에게는 오십이라는 모자를 씌워주지 말아라. 영화로운 것을 딱 열 개만 씌워줘라.”

하나님도 행한 대로만 딱 해주지 그 이상은 안 해주십니다. 왜. 여기에 이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 물을 부으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상의 물을 주면 넘쳐 버립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알고서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후반기에 선생님이 철저히 하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 마라.” 열 번, 스무 번, 백 번 내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유지 사도를 기를 때도 “왜 유지는 열 개 있는데 스무 개를 바라느냐. 그것은 안 된다. 영원히 불가능해.” 그랬습니다. “거기만큼만 해라. 이만한 그릇이 있는데 이 만한 그릇 이외에는 물을 주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철학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열 개면 열 개만 하지 더 이상은 안 한다. 그래서 행한 대로만 축복 주고 행한 대로만 복 주고 나머지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금주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화되어라. 지금 추수 때다. 그리고 나가서는 과감하게 전하라! 이와 같이 이렇게 되는 때다! 와보라! 시대의 말씀을 들어보라!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이 전도 되어야지 순간 요령 갖고 안 되고 어떠한 예술과 문화로만 구원이 좌우되고 인생 문제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니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시대를 제대로 가르쳐라.” 했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근본의 문제, 신적문제가 해결된다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고 축복을 해줄 수 있고,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서 자체 성장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야 분재에 있는 나무가 벗어나서 땅에다 심은 나무가 같아서 자족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신앙으로 되도록 자신이 말씀을 근본을 깨닫고 알고 주를 깨닫고 알고 살아야만 자신이 유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변화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들에게 함께 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해주며 역사하시고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고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이들에게 하며 내가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들을 기도하오니 그 기도대로 되게 축복해주시옵소서. 영육이 잘 되고 형통할 지어다. 아멘.

